

문학 번역 교육: 타자와의 신비한 만남

나 윤 숙
(한동대)

1. 서론

각 집단 간의 언어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이 실존적 상황이기예, 인간의 여러 활동 가운데 장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번역(또는 통역) 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이라는 대상이 학문으로 인정되어 번역학이라는 이름으로 논의 된지는 그리 오래지 않아서인지 상대적으로 다른 학문에 비해서 그 전통이나 체계가 아직은 조금 성긴 것이 사실이다. 물론 심도 깊은 연구와 번역 활동을 통해 탁월한 업적을 남긴 분들의 노고를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 연유야 다양하겠으나, 번역(또는 통역) 이 언어가 다름으로 인하여 소통이 되지 않는 타자와 나와 의 관계를 연결하는 일이라고 사뭇 조야한 정의를 내려본다면, 이는 태생적으로 상당히 기능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활동임에 틀림없고 그래서 소위 지적인 계발이 연루되어야 할 필요성이 덜 하다고 잘못 인식된 탓이리라 본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번역의 존재 이유가 나와 타자 사이의 이해에 근거한 소통을 도모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공헌하는

것이라면, 번역학 만큼 인간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다양한 언어 철학적인 이슈들을 내포하고 있는 학문도 드물다고 본다.

타자와 나와와의 관계라는 밑그림을 바탕으로 하는 문학 번역 강의에 대한 소개라는 기본 틀을 중심으로, 본고에서는 필자의 강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필자가 가르치는 문학번역 강의의 기본적인 목표는 문학 번역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분석하고, 영어로 된 문학작품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론과 실재를 병행하는 교과 과정을 통해, 영어와 우리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표현 능력을 개발함은 물론, 학생들이 자신만의 고유한 번역관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래서 문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문학 번역 인으로서의 능력을 개발함과 아울러 소명의식을 심어주고, 궁극적으로 기독교인으로서 문학 번역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불어 고민하는 수업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 취지임을 먼저 밝혀 두는 바이다. 아직은 번역(학)에 대한 학문의 깊이가 미천한 처지라, 그저 이 자리가 본인의 강의 경험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문학번역에 대한 간단한 고찰을 해 보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문학 번역 강의를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¹⁾

2. 이론들

한동 대학교는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추구하고 있는 교육기관이다. 이에 구체적으로 문학 번역에 관한 논의를

1) 필자는 한동 대학교와 한동 통역/번역 대학원에서 ‘문학번역’이라는 과목을 맡아서 가르치고 있고 이 글의 주제 또한 문학 번역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일반 번역과 문학 번역을 구분하는 근거를 제대로 설명하자면, 소위 문학적인 글과 비문학적인 글의 본래적 차이를 가리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언어의 본질이나 기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를 두고 사뭇 언어학적인 논쟁이 불거질 수 있기도 하거니와 필자가 적격자도 아니라는 소심한 자의식이 발동하여 건너뛰기로 하겠다. 그리고 문학 번역에 관한 논의를 하려는 자리인지라 내용의 집중적인 조명을 위해 기왕에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발달해 온 통역은 논외로 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하기에 앞서, 학생들이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언어의 다양성을 고찰하고 다른 언어권의 사람들을 어떻게 수용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를 기저로 하여 강의를 시작하였다. 미국 켈빈(Calvin) 대학교의 데이비드 스미쓰(David Smith)가 그의 저서 『이방인에게서 온 선물』(*The Gift of the Strangers*) 1장에서 마침 바벨탑 사건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과 타인에 대한 성경적인 태도를 잘 고찰하고 있기에 이 글의 논지를 강의의 바탕으로 삼았다. 핵심은 바벨탑을 쌓고 있었던 인간들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흠으신 것은 처벌이 아니며, 인간이 더욱 더 하나님 밖으로 탈선할 수 있는 상황을 강권적 개입으로 미리 막아주신 사건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언어가 갈라짐으로 인하여 오히려 이 땅에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될 수 있었고,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는 타자와 나와 관계 속에서 인간의 실존은 더 견비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타자가 나에게 이방인일 수 있듯이 나도 타자에게 이방인이 될 수도 있다는 처절한 깨달음을 통해서 말이다. 특히 스미쓰가 주장하고 있듯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부동의 판단 기준”(the immovable point of reference)으로 결코 여기지 않은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16). 이 논지를 근거로 한 걸음 더 나아가, 학생들로 하여금 단지 나를 타자의 입장에 놓아 보는 역지사지의 단계를 넘어서 나의 입장에도 타자를 놓아 보는 차원의 소통의 의미까지도 생각해 보게 하였다.

두 번째로는 로마시대 번역을 필두로 하여 (문학)번역에 대한 개괄적인 역사를 다루고 있는 글을 읽음으로—본격적으로 문학 번역에 관한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학생들이 전체적인 (문학)번역 역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강력한 로마의 정치, 경제적 지배 하에서 번역 또한 ‘로마화’(Romanization)를 피할 수는 없었다. 결국 이 언어 제국주의(Linguistic Imperialism)²⁾ 전략이 성경 번역의 근간이 되어서 중세 1000여 년 동안 사용된 라틴어 성경이 탄생하게 되었고, 훗날 종교개혁 당시 유럽의 개별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때쯤 되어서야 각 국의 언어(vernacular languages)가 독립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음도 주지시켰다. 그러나 자국화 전략에서 탈피하여 이렇게 타자의 주체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오히려 번역가에게는 건널 수 없을 것만 같은 원작자와 독자 사이의 공간을 연결해 주어야 한다는 필연적인 짐을 지워 주는

2) 휴고 프리드리히(Hugo Friedrich)의 글 “On the Art of Translation” 13쪽 참조

결과를 낳고야 말게 되었다. 물론 언어 상대주의자 (relativist)들의 반박이 있기는 하나, 개별 언어 사이에 존재한다고 믿는 유사성을 붙들고 번역가들이 부지런히 타자의 주체성을 어떻게 나의 주체성과 만나게 할지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외국어 학습이 사고에 미치는 본질적인 영향력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목적으로 쇼펜하우어(Schopenhauer)의 외국어 교육, 혹은 습득의 과정에서 얻게 되는 언어학적인 이점을 다룬 글을 학생들이 읽도록 하였다. 언어와 문화가 다름에 따라 사고의 체계가 다르므로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결국 자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다른 개념을 습득하는 것이 라는 그의 논지에 의거하면, 결국 모든 언어 사이에는 완벽하게 동일한 개념을 나타내는 등가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³⁾ 이는 원천적으로 완벽한 번역은 불가능하다는 명제를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에, 마치 쇼펜하우어 자신이 염세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자칫 번역가를 우울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문학 번역의 본래적 목적 중의 하나가 타자를 더 잘 이해하여 존중하므로 나와 타자와의 건강한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을 때는 깨달을 수 없었던 타자성에 대한 이해는 타자와의 맞대면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이 ‘맞대면’을 하는데 있어서 언어를 통해 타자의 세계에서만 인식될 수 있는 고유한 개념을 수용하여 나의 지경을 넓히는 일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고 본다.

지금까지 번역(학)을 공부함에 있어 기본적인 밑그림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나와 타자간의 역동적 관계 및, 나의 것을 타자의 것으로 치환해 버리거나 교환하는 것이 아닌 타자의 다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문제에 관한 고찰을 하였다. 이제 본격적인 문학번역의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소위 기초 공사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판단되었기에, 쉘라이허마허(Schleiermacher)의 논문인 “번역을 하는 두 가지 방법에 관하여”(On the Different Methods of Translating)로 말문을 열었다. 그런데 필자가 학생들을 가르치며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중의 하나는, 소위 의역이 독자를 ‘위한’ 번역이고, 직역이 원작자를 ‘위한’ 번역이라는 비논리적인 이분법적 사고를 학생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

3) 쇼펜하우어 (Schopenhauer)의 글 “On Languages and Words” 34쪽 참조

생들이 이런 오해를 하는 이유는 독자 입장에서의 가독성을 우선시하는 전반적인 사회 풍조에 기인한다고 여겨진다. 물론 가독성이 결여된 번역은 번역가의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되기 어려운 현실적인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의역 혹은 직역이라는 용어의 애매모호한 의미에 대한 논의와 아울러,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독자와 원작자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통상 직역이라 함은 ‘문자 대 문자’(word for word) 번역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원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번역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전적인 의미의 일대일 대응 방식으로 번역을 한다고 해서 소위 원작을 살리는 번역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상식이 된지 오래다. 최악의 경우에는 원작의 본래적 의미를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독자들이 읽기에 가독성마저도 떨어지는 번역이 되어버리고 만다. 반대로 의역의 경우에는, 번역가의 독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명분하에, 혹은 가독성을 불모로 하여 원작은 온데 간데 없어지고 근원을 알 수 없는 번역물이 등장하기도 한다. 또, 독자가 원하는 것이--물론 현실적으로 이런 독자층이 두텁지는 않겠으나--외국작품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이국적인 맛을 음미해 보는 것이라면, 언어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자국화 시켜 버리는 번역이 과연 진정으로 독자를 ‘위한’ 번역이 될 수 있을지도 한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읽기에 편리하면 좋을 것이라는 나의 주관적인 입장에서만 타자를 인식하여 배려 아닌 배려를 한다면, 의역의 결과는 독자에게도 원작자에게도 오히려 실망스러울 수도 있음을 짚고 넘어갔다.

이러한 분류상의 모호함을 극복하고자 슬라이더마허는 다른 차원에서 원작자, 독자, 번역가의 관계를 조망하고 있다. 번역가를 원작자와 독자 사이에 놓인 언어의 다름으로 인해 생성된 건널 수 없는 공간에 다리를 놓는 존재로 일단 설정한다. 이 때 문제는 어차피 ‘사이 공간’에서는 만날 수 없기에 독자와 원작자 중 한쪽은 다른 한 쪽으로 이동해야 만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두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는데, 하나는 독자를 원작자 쪽으로 데려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작자를 독자 쪽으로 데려 가는 것이다. 본래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해석학자이기도 한 슬라이더마허가 첫 번째 방법 즉, 독자를 원작자 쪽으로 데려 가는 것을 옹호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본다. 슬라이더마허에게 있어서 원작자의 의도는 그 어느 것보다도 타협할 수 없는 본질적인 것

임이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슐라이허마허의 주장은 이렇다. 모든 번역가가 원작자를 독자에게로 데려오는 방법을 택하여 그야말로 자국어로 편하게 술술 읽히는 번역, 혹은 원작을 재료로 하여 다양하게 각색을 해보고 싶은 “욕심”(concupiscence and wantonness)을 부려 볼 수 있겠으나(58), 그의 기준으로 따지자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번역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래 영어로 쓰인 헤밍웨이 (Hemingway)의 『노인과 바다』(The Old Man and the Sea)를 한국어로 번역할 경우, 이상적인 것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헤밍웨이가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워 그 수준이 거의 원어민에 가깝다고 가정하고 헤밍웨이 본인이 직접 번역을 할 경우에 나올 법한 번역물이 가장 좋은 번역이라는 것이다. 즉 영어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신이, 혹은 헤밍웨이라는 작가에게만 있는 고유한 모든 것이—문체 등을 포함한—가능한 한국어 번역에서도 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원작자를 독자에게로 데려 가는 두 번째 방법으로 번역을 한다는 것은 헤밍웨이가 원래부터 한국인이라 한국어로 『노인과 바다』를 썼더라면 나옴직한 결과물과 같은 번역이 될 것인데, 이는 본래적으로 헤밍웨이가 원래 영어로 썼던 작품과 쓰인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본질이 다를 수밖에 없는, 즉 번역이 아닌 별개의 독립적인 작품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⁴⁾ 이는 언어(표현)와 사고가 분리될 수 없으므로 사고가 형성될 때 모국어로부터 받은 영향력을 완전히 분리하여 똑 같은 사상을 단지 언어라는 옷만 바꾸어 입혀서 100% 재현할 수 없다는 논지이다. 결국 작가의 사상은 모국어를 통해서 형성된 것이므로, 원작자가 도착어로 똑 같은 작품을 쓴다면 하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다음으로는 쇼펜하우어의 언어관과 비슷한 맥락의 글이기는 하지만 번역가가 자신의 번역 작품에 붙인 서문을 읽혀 직접 번역을 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보았다. 훔볼트 (Humboldt)가 『아가멤논』(Agamemnon)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쓴 글인데, 각각의 개별 언어는 동일한 것이 아니라 유사할 뿐이어서 특정한 개념을 표현하는 방법은 서로 다를 수밖에

4) 슐라이허마허는 라틴어 원작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경우를 예로 들고 있으나, 한국 상황에서 좀 더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도록 설명하고자 본인이 임의로 헤밍웨이의 예를 들었음을 밝혀 두는 바이다

없다는 논리이다. 그 근거는, 개념을 기호화 한 것이 말 혹은 글인데, 인간의 고귀하고 심오한 감정이나 사상은 우리가 그 감정이나 사상을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나의 상징으로 정착하여 수용되게 된다. 다시 말해, 말(글)이 아니라면 그 개념이 이해되거나 실체화 될 수 없어서 언어가 다르면 필연적으로 개념의 차이가 생성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실체(objects of reality)는 인간 정신을 통해 개념(ideas)으로 형성되고, 이 개념들은 서로의 상호작용을 통해 무제한적으로 재창조되게 된다. 그런데 번역을 통해서 번역가는 도착어에는 존재하지 않고 출발어에만 존재하는 개념이나 정신을 살려 이국적(foreign)이라고는 느껴지되 어색함(foreignness)은 없는 번역을 해야 한다고 흠볼트는 주문을 하고 있다.⁵⁾ 이와 연장선상에서 볼 때, 번역 작품을 읽음으로 해서, 외국적인 것과 자기 고유의 것, 아는 세계와 모르는 세계가 서로 맞물려 일종의 서클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완성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괴테(Goethe)의 글이나, 원작자 고유의 경험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자국의 것으로 대체한 로마의 번역을 비난하는 니체(Nietzsche)의 글 모두 결국은 타자를 고유한 존재로서의 타자로 만나고 싶다는 욕구의 표출이 다르게 표현된 것이라고 여겨진다.⁶⁾ 물론, 이와 같은 번역이 수용되려면 자국 문화에 대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고 외국 문화에 대하여는 열린 사고를 할 줄 아는 대중적 기반이 필요함도 학생들이 숙지하도록 하였다.

이즈음 되면 학기도 중반으로 접어들게 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실제 번역에서 소위 ‘써 먹을 수 있는’ 글을 기대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릴 수 있는 벤자민(Benjamin)의 글—척박한 번역학의 영역에서 이제는 거의 고전이 되어버리다시피 한—“번역가의 임무”(The Task of the Translator)를 읽고 일부 학생들이 당혹해 하기도 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 유인즉슨, 도대체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번역을 해야 좋은 번역물이 나올 수 있을 지에 여전히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벤자민이 제시하는 번

5) 흠볼트의 글 “From the Introduction to His Translation of *Agamemnon*” 57, 58쪽 참조

6) 학생들이 읽어야 할 논문의 양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내용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근래에는 흠볼트, 괴테(“Translations”), 그리고 니체(“On the Problem of Translation”)의 글은 읽히지 않고 있다.

역가의 임무는 사뭇 뜬금없이 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명저 『바벨탑 이후』(After Babel)에서 조지 스타이너(George Steiner)가 제시한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아담이 공유했던 잃어버린 원초적 언어”(primal, lost speech shared by God and Adam)를 회복한다는 비전과 맥을 같이 하는 글이라고 볼 수 있는데(474), 결론부터 말하자면, 벤자민도 바벨탑 사건 이전에 존재했을 언어, 즉 ‘순수 언어’(pure language)를 전제로 하여 글을 풀어 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바벨탑 사건 때 조각난 개별 언어 상호간의 숨겨진 관계를 불완전하게나마 드러내어 순수 언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데 번역의 의의가 있게 된다. 원래 순수 언어라는 하나의 기원에 근거한 개별 언어 사이에는 유사 관계(kinship)가 내재되어 있어 선형적인 관계를 서로 유지하고 있고, 번역으로 표출되는 언어 간의 유사관계는 단순히 원작과 번역물의 피상적인 공통점을 넘어서는 훨씬 심오하고 분명한 그 무엇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번역은 적어도 ‘순수 언어’에 이르는 길의 방향을 제시해 줌으로써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는 언어 간의 화해를 도모할 수 있는 희망을 제공해 준다고 한다. 이 화해의 영역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단지 원작의 주제나 내용을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 즉 현실적으로는 번역이 불가능한 어떤 핵과 같은 요소로 정의될 수 있다. 이것이 애당초 벤자민이 예술 작품의 본래적 의미를 논할 때 감상자의 존재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전제로 글을 시작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다. 그래서 원작의 모든 피상적인 내용이 번역되어 전달된다 할지라도, 정작 번역가의 임무로써 옮겨야 할 그것은 여전히 모호한 상태로 남게 된다. 이 때 벤자민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불완전하나마 순수 언어의 울림을 갖게 되는 번역물의 언어이다. 원작에서는 내용과 이를 감싸고 있는 언어가 잘 들어맞는다고 하면서 이것을 과일과 그 껍질에 비유하고 있다. 반면, 번역물의 언어는 마치 주름져서 늘어진 어의처럼 그 내용을 완전히 폭 덮어 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번역된 언어는 원작의 언어 보다 한층 더 고양되어 있기에 번역으로 인해 원작은 더 고차원적이고 순수한 언어적 차원으로 승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벤자민의 표현을 직접 빌려보자면, 원작의 언어는 자발적(spontaneous), 본래적(primary), 묘사적(graphic) 이고, 번역물의 언어는 파생적(derivative), 궁극적(ultimate), 관념적인(ideational) 언어가 되므로 번역이라는 영역은 철학과 문학의 중간쯤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도 하고 있다

(77-78).

벤자민이 어차피 그림자를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밖에는 보이지 않을 ‘순수 언어’를 고집하는 이유는 언어의 껍질과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는 진리의 언어에 대한 그의 갈망이라고 여겨진다. 굳이 무엇을 표현하고자 따로 의도하지 않아도 언어 속에 진리가 온전히 담겨져 있는 그 언어 말이다. 그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작가가 인위적으로 의도하는 의미가 굳이 필요 없이 언어와 진리가 혼연일체가 되는 것인데 이를 구현한 텍스트는 신의 말씀이 그 영의 감동에 의하여 쓰인 성서밖에는 없다고 본다. 그래서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성서 번역이야말로 원작의 언어와 계시되는 것이 완벽한 일치를 이루므로 번역에서도 이것이 고스란히 사라지지 않고 전달될 수 있는 예라고 보고 있다(82). 그의 생각이 이러하므로 당연히 자국어의 개념으로 원작의 언어를 일방적으로 덮어 버리는, 그래서 타자가 내 안에서 사라져 버리는 그런 번역이 그의 마음에 들 리 만무다. 의역이나 직역이나 하는 이분법에 여전히 매여 있는 학생들에게 순수 언어의 개념과, 번역의 언어야말로 원작의 언어에서는 감추어져 있는 순수 언어의 울림을 느끼게 하는 차원의 언어일 수 있다는 벤자민의 논지는 번역가의 임무에 대한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고민의 기회와 아울러, 작가에 비해서는 늘 이차적이고 심지어는 종속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번역가의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사뭇 고무적인 글이었다.

즐곧 딱딱한 독일인들의 글만 읽다가 모처럼 스페인의 철학자인 오르테가 이 가세트(Ortega y Gasset)의 글은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고 풍부한 예화가 주어져서인지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친근하게 다가왔다. “번역의 비참함과 찬란함”(The Misery and Splendor of Translation)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인간의 실재(reality)는 무한대로 나뉘어져 언어라는 기호로 상징화 될 수 있는데, 언어가 달라짐으로 해서 다르게 나누어진 실재로 인해 사고체계도 바뀌게 되므로 언어 간 등가의 부재라는 문제가 생겨 당연히 번역 불가능성의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그는 일견 암울하게 보일 수도 있는 번역 불가능성의 문제를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풀어 나가고 있다. 인류의 역사가 현실에서 이를 수 없는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과정을 통해 발전해 왔듯이, 완벽한 번역이라는 어차피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을 향해 나아가는 것 자체에 번역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제

목에서도 유추가 가능하듯이 번역 불가능성은 번역가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현실이기도 하면서, 역설적이게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도달할 수 없는 이상을 추구하는 번역가의 역할이 진정한 빛을 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앞서 읽은 다른 학자들과 오르테가 이 가세트가 구별되는 점은 그가 아예 문학 번역을 일반 문학 장르와는 별도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된 문학 작품을 일반 작품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되고 작품에 이르는 통로(path)이거나 기구(apparatus)의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한 원작에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번역물이 생산되어 서로 간에 보완 작용을 하므로 해서 원작의 모습을 독자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현실적인 방안도 제시해 주고 있다(109). 한 작품에는 모범 답안과도 같은 하나의 번역물이 존재한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는 학생들의 사고를 유연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번역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되어 번역가로서의 자유도 누릴 수 있게 해 주는 제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오르테가 이 가세트의 언어관도 지금까지 강의 시간에 다른 학자들의 생각과 본질적으로는 그 맥을 같이 하기에, 결국은 슐라이허마허가 옹호하는 번역 방법, 즉 독자를 원작자에게 데려감으로 해서 가능한 원작의 세계를 원래대로 독자가 체험하게 하는 쪽에 손을 들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사뭇 이론적이고 철학적으로 느껴지는 글들을 몇 개 읽다 보니 어느덧 한 학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빙산의 일각만을 만져본 것 같은 아쉬움은 여전히 남았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글을 읽음으로써 한 학기 내내 머리로 씨름해 온 문제들을 한데 모아 마음으로 느끼며 총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였다. 이에 소설가이면서 번역가의 글인 “번역하기와 번역되기”(Translating and Being Translated)로 마무리를 하였다. 지금까지 언어 철학적인 데에 중점을 두고 번역을 논한 학자들과는 달리, 역시 소설가답게 저자인 노삭(Nossack)의 문학 번역에 대한 논지는 다음과 같다. 인류에게는 역사, 문화, 인종, 성별 등을 초월하는 보편성이 내재하는데, 진정한 문학 작품이 되려면 그 작품을 읽는 독자의 마음속에서 이러한 보편성이 건드려지고 공유되는 감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차피 글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 문학 작품인 것은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무언의 언어”(silent language) 또는 “음조가 없는 언어”(toneless language)야말로 인간이 물화되어 가는 세상에서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언어라는 그의 주장은 일견 모순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236-37). 그러나 문학의 존재 이유가 인간성을 모독하고 말살하려는 모든 형태의 외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구원하는 데 있다면, 허위에 가리어진 진실은 침묵의 형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를 가장 잘 드러내는 언어도 역시 소란스럽지 않을수록 그 울림이 더 깊을 것이다.

번역된 문학 작품도 예외가 될 수는 없기에 직역이나 의역이나, 혹은 이국화이나 자국화이나의 이분법적 논리를 떠나서, 문학 작품에 드러난 타자의 삶을 통해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가지고 있는 “실존의 욕구”(existential desires)를 느낄 수 없다면 좋은 문학 번역이 아니라고 노삭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236). 이는 아무래도 자신이 타인의 작품을 번역하는(translating) 번역가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작품이 타인에 의해 번역되는(being translated)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소설가이기도 한 노삭의 특수한 상황에도 기인한다고 본다. ‘번역하기’와 ‘번역되기’라는 제목만 보아도 짐작 할 수 있듯이, 내가 타자가 되어 보고 타자로 나를 삼아 보는 가상의 실재를 직접적으로 체험한 노삭의 글이야말로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다양한 이론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지니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노삭의 글은 문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온통 방법론에만 열중하고 있던 학생들에게 다시금 본질에 주목할 수 있게 하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3. 번역 연습

지금까지 그리 길지 않은 한 학기 동안의 문학 번역 수업 시간을 통하여 학생들과 함께 읽으며 고민해 온 글의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다. 그러나 번역의 직접적인 경험이 없이는 이 모든 이론이 그저 탁상공론으로 그칠 소지가 있기에 매 주 작가를 바꾸어 가며 비교적 짧은 단편 소설 위주의 과제를 번역해 오도록 하였다. 물론 한 작가의 소설을 완역해 넘으로써 학생들이 무엇인

가를 이루었다는 성취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었으나, 아무래도 여러 작가의 다양한 문체와 사상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일반 번역과 문학 번역의 본질적인 차이를 체험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어 그리 하였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과 교수의 모국어가 한국어이고 강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습득하고 있는 외국어가 영어인지라 영어로 쓰인 문학 작품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연습을 하였다. 반대의 경우도 실험은 가능하였으나, 특히 문학 번역인 경우에는 번역물로 생산되는 도착어가 번역가의 모국어이어야 한다는 필자의 소신에 의거하여 다루지 않기로 하였다.⁷⁾

무미건조하고 간결한 문체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헤밍웨이, 미국 르네상스 문학의 정점에 있으며 복잡다단한 인간의 심리를 만연체로 표현한 호손(Hawthorne), 이민자의 애환을 단순하지만 심오한 어린 소녀의 시각에서 조명하는 한국계 미국 여성작가인 안나(An Na), 그리고 영국 신고전주의를 대표하는 풍자가인 스위프트(Swift), 첫 딸에 대한 애환과 갈등의 기억을 논리적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내어 번역가를 당혹스럽게 한 올슨(Olsen)의 글 등 가능한 학생들이 작가의 시대, 지역, 성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풍성한 문학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특히 시 번역을 통해서도 소설에서는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았던 운율과 리듬까지도 고려하여 번역해야 함을 학생들이 몸소 경험하게 되었다. 소설을 번역할 때 대부분 내용 전달에만 치중해오던 학생들이 시의 형식, 즉 언어가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와 분리될 수 없는 본질적인 문학의 요소라는 점을 실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과제로는 영어로 이미 번역되어 나와 있는 한국 문학 작품의 번역본을 한국어로 다시 번역하게 하는 역번역(back translation)을 통해 번역의 과정에서 소실되거나 혹은 변형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게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문학 번역이 일반 번역과 다를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이유가 피상적으로 표현되어 드러난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 속에 함축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학생들이 깨닫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론을 읽고 소화해 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번역한 과제물을 제출해야

7) 참고로, 한 학기에 다룬 작가의 수는 11-12명 정도이고, 시 번역도 한번은 하도록 하였다.

하기에 이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물론 만만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한편, 담당 교수의 가치관에 따라 상이한 이론들을 다룰 수도 있고, 선호하는 번역 방법론도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문학 번역이라는 강의만큼 ‘자유하게’ 가르칠 수 있는 과목도 사실 드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가 자칫 애매모한 기준설정으로 인해 번역 과제물의 평가에 있어서는 교수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군다나 문학 번역처럼 하나의 원작을 두고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양한 번역물이 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 낸다는 것 자체가 사뭇 부담스러울 수 있다. 어차피 학생들의 오류를 집어내어 감점을 하는 것이 평가의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 후 매 번 한 주 동안 수정(revise)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수정 본을 수거하여 평가를 하되 감점은 오역 위주로 하였고, 교수와 학생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간략한 역사후기를 적어오게 하여 학생이 제시한 번역관과 번역물과의 부합성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를 하였다. 이렇게 하면 학생과의 오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 주 바뀌는 작품과 상황에 따라 학생들도 다양한 번역 방법을 취사선택해 가며 연습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런데 실제 문학 방법론에 있어서, 슐라이허마허를 비롯하여 수업 시간에 다룬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원작의 고유성을 살려야 한다는 데에 원론적인 동의가 된다는 치더라도, 사실 실제적으로 이를 번역에 적용하자면 소위 의역이라 불리기도 하는 자국화 전략에 의거한 번역에 비해 몇 배의 수고를 기울이고도 어찌면 결과는 ‘어색한’ 번역물이 되어 버릴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서점에 출판되어 나와 있는 기존 번역 문학 작품의 대부분이 ‘자연스러운’ 우리말 번역의 방법을 취하고 있어 학생들이 이미 익숙해 있는 터라, 그것과 상이한 방법의 원리와 타당성도 배우고 경험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의도적으로 이국적인 것을 살려 보자는 논지의 글을 주로 읽게 하였다. 타자를 인식한다는 것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결국은 내 식대로 이해하는 것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인간의 실존적 현실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처음부터 타자의 고유성을 삭제해 버리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4. 결론

애당초 특정한 문학 번역의 방법을 취하여 그것의 정당성을 입증해서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려는 것이 본 강의의 목적은 아니었다. 오히려 학생들이 막연하게 당연시 여기고 있는—아마도 시장성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소위 의역의 우물 밖으로 그들을 데리고 나와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번역가 스스로가 상황에 적절한 번역을 ‘소신껏’ 해낼 수 있는 훈련의 장을 제공해 주고 싶었다. 비근한 예로, 영어로 된 문학작품을 한국어로 번역할 경우 서슴없이 자국화 번역의 정당성을 주장하던 많은 학생들이 반대로 한국어로 된 문학 작품을 다른 언어로 번역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할 경우 사뭇 다른, 즉 원작을 가능한 살리고 싶다는 자기모순적인 사고를 하고 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물론—의역이든 직역이든—분류법상의 명칭이 무엇이든 간에 상황에 대한 적실성을 무시하고 특정한 번역 방법론을 고수해야 한다는 논지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선택한 번역 방법 혹은 번역관에 대해 마땅히 고민해야 하고 스스로 그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두에서 언급한 스미쓰의 글에도 나와 있듯이, 이방인의 존재를 선물 (gift)로 인식함도 결국, 나의 생각을 말하는 입보다는 타자의 생각을 듣는 귀가 더 귀하다는 깨달음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그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기쁨은 겸손한 자세로 나를 낮추고 타자의 고유한 주체성을 인정하되, 나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고 이를 건강하게 수용하는 자라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폐일언하고, 문학의 존재 이유가 결국은 나와 타자와의 신비한 만남을 통해 인간의 내면이 더 깊어지는 데 있다면, 문학 번역의 결과물은 물론 이러니와 번역의 과정도 타자와의 맞대면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굳이 ‘신비한’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한 이유는 타자와의 맞대면의 과정 중에 ‘다름’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고통이 강렬할수록, 만남의 깊이가 심오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결국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 넓혀진 지경 속에서 나와 타자와의 신비한 만남이라는 축복을 한층 더 누릴 수 있게 되리라고 본다.⁸⁾

8) 마지막 시간에는 한 학기 동안 배운 이론들과 고민해 온 여러 난제들, 또 다양한 문학 작품을 직접 번역해 보며 체험했던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잠정적이고 과도

참고 문헌

- Benjamin, Walter. 1992. 'The Task of the Translator,' (eds) Rainer Schulte and John Biguenet. *Theories of Translation*. Chicago: The U of Chicago P. 71-82.
- Friedrich, Hugo. 1992. 'On the Art of Translation,' (eds) Rainer Schulte and John Biguenet. *Theories of Translation*. Chicago: The U of Chicago P. 11-16.
- Goethe, Johann Wolfgang. 1992. 'Translations,' (eds) Rainer Schulte and John Biguenet. *Theories of Translation*. Chicago: The U of Chicago P. 60-63.
- Humboldt, Wilhelm. 1992. 'Introduction to His Translation of Agamemnon,' (eds) Rainer Schulte and John Biguenet. *Theories of Translation*. Chicago: The U of Chicago P. 55-59.
- Nietzsche, Friedrich. 1992. 'On the Problem of Translation,' (eds) Rainer Schulte and John Biguenet. *Theories of Translation*. Chicago: The U of Chicago P. 68-70.
- Nossack, Hans Erich. 1992. 'Translating and Being Translated,' (eds) Rainer Schulte and John Biguenet. *Theories of Translation*. Chicago: The U of Chicago P. 228-38.
- Ortega y Gasset, Jose. 1992. 'The Misery and the Splendor of Translation,' (eds) Rainer Schulte and John Biguenet. *Theories of Translation*. Chicago: The U of Chicago P. 93-112.
- Schleiermacher, Friedrich. 1992. 'On the Different Methods of Translating,' (eds) Rainer Schulte and John Biguenet. *Theories of Translation*. Chicago: The U of Chicago P. 36-54.

기적이라 할지라도 학생들 스스로가 각자의 문학 번역관을 적어 내어 전체가 함께 나눔을 갖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왕에 번역가라는 독특한 위치와 역할 때문에 나와 타자간의 관계라는 주제로 한 학기 내내 훈련을 받아온 학생들에게 다른 번역가와 그들의 번역 세계를 나누는 일 또한 나와 타자와의 신비한 만남을 경험하는 데 일조를 하였다고 생각한다.

- Schopenhauer, Arthur. 1992. 'On Language and Words,' (eds) Rainer Schulte and John Biguenet. *Theories of Translation*. Chicago: The U of Chicago P. 32-35.
- Smith, David and Barbara Carvill. 2000. *The Gift of the Stranger*.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 Steiner, George. 1975. *After Babel*. London: Oxford UP.

[Abstract]

**Teaching Literary Translation:
A Mysterious Encounter with the Other**

Na, Younsook
(Handong Glob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ranslation Studies is to bridge the gap between I and the Other, and ultimately help to establish the harmonious relationship among people. Particularly, literary translation can be a good site to examine the reasons for the existence of multiple languages on earth and to experience the blissful yet painful differences from the Other.

Considering the various issues related to linguistic and philosophical matters, students of a Literary Translation course have a chance to review diverse theories as well as to practise translating some literary texts based on the theories. The students can concentrate on the original text and try to preserve its totality as much as possible. On the contrary, they can transform the original work in order to meet the taste of the general reading public.

What is important is to give the students an opportunity to think about why they prefer to take one type of translation method to the other. The function of the teacher in the course is to encourage the students to find their own view on literary translation which leads them to various methods for a successful translation in a real situation.

▶ Key Words: literary translation, the other, translation theory, free translation, literal translation, teaching translation

나윤숙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부교수

younsook@handong.edu

관심분야: 미국소설, 문학번역, 번역교육

논문투고일: 2009년 1월 28일

심사완료일: 2009년 2월 21일

게재확정일: 2009년 3월 7일